

정의선 “기아 80년 위대, 도전 DNA로 100년 여정”

기아, 창립 기념행사…역사 망라한 전시회 진행
자전거에서 전기차·PBV까지 역사서 최초 발간
역동적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 공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주요 인사들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기아는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Kia 80th Anniversary Ceremony)’를 열고, 80년 사사(社史)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Vision Meta Turismo)’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가 선보인 ‘기아 80년’은 브랜드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재조명한 책으로, 1994년 50주년 사사 이후 30여년 만에 내놓은 것이다.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도전과 분발’을 주제로 1944년 경성정공으로 창립한 이래 두 바퀴 자전거부터 삼륜차, 승용차, 전기차, 목격기반모빌리티(PBV)까지 기아 성장사를 집약했다.

또 김철호 창업자의 기술 입국 정신과 기아 회생을 끌어낸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경영, 글로벌 경영과 새로운 조직문화

를 이끈 정의선 회장의 디자인 경영 과정도 담았다.

기아는 축약본 ‘도전과 분발/기아 80년’도 출간했다. 창업 정신과 주요 모델 개발과정, 시련 극복 및 브랜드 성장 스토리 등을 읽기 쉽게 재구성했다. 사사 발간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크 세션 ‘80년 헤리티지’도 열어 ‘도전과 분발’의 기아 정신을 폭넓게 공유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대표해 지난 80년을 기억하며 함께 해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아는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담은 기아의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도 최초로 공개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단순한 주행에서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미래 콘셉트카다.

1960년대 장거리 여행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콘셉트카에 담았다.

외장 디자인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픈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기반해 부드러운 표면과 기하학



기아는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Kia 80th Anniversary Ceremony)’를 열고, 80년 사사(社史)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Vision Meta Turismo)’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왼쪽부터) 기아 홍철민 매니저, 기아 김가민 엔지니어, 이학영 국회의원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 기아 카타르 대리점 회장 압둘아지즈 모하메드 알 아미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적 요소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루엣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과 모빌리티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콘셉트카는 AR HUD 기술을 활용해 ‘스피드스타’, ‘드리머’, ‘게이머’ 등 3가지 디지털 주행모드를 탑재했다.

AR HUD는 운전자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도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한 기능이다.

1층에는 기아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The Legacy of Movement)’은 1952년 완성된 최초의 국산 자전거 3000리호를 비롯해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아 대표 차량 17대를 활용해 꾸며졌다.

또 김철호 창업자의 비전을 주제로 한 ‘바퀴와 유산’, 기아의 고객 중심 DNA를 조명하는 ‘진화와 유산’, 현지 생산 전략에 기반해 해외로 뻗어간 과정을 담은 ‘개척과 유산’ 등 총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람과 유산’ 전시 공간은 ‘품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강조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리더십 스토리와 기아의 대표 장수 모델 ‘스포티지’와 ‘카니발’을 조명했다.

‘움직임의 유산’ 전시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 오요우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기아 80년의 역사, 스토리, 역대 출시 차량을 고객 관점에서 재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무브먼트 아카이브’, 영상 캠페인 ‘더 포트리트 오브 기아’도 공개됐다.

기아는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료 공모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도 시행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기아, 잘 다듬으면 훌륭한 보석…안전에 초점”

정의선 회장. 2005년 기아차 사장 올라 디자인경영 정착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은 기아 80주년을 맞아 “기아의 미래는 도전”이라며 “지금까지 항상 (도전을) 해왔고, 앞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1944년 창립한 기아는 우리나라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로, 1998년 현대차에 인수됐고 정 회장은 2005년 당시 기아차 사장으로 회사를 정상화한 이력이 있다.

특히 그는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기아로 영입하는 등 디자인 경영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회장은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가 진행한 ‘한국판 버펄러의 점심’인 갯생한끼에 참여해 기아를 맡았을 때를 회고하며

“회사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행을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꿔왔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팀워크였고 그때 배운 것이 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기에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그리고 많은 도전이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잘했던 부분, 또 실수했던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많이 굴곡이 있었기에 결국 (기아가 나아가야 할 것) 도전”이라며 “(김철호) 창업주가 가진 생각을 계속하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생각도 (이어가면) 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와 차별화되는 기아만의 DNA를 묻자 “기아는 정체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원초적으로 강하고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저희가 좀 늦은 편이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어 격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며 “그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모집기간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000명(선착순)

초청강사

정치, 경제, 교육, 법조, 의료, 문화예술, 자영인사 초청 특강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특급호텔 석식 제공)

학사운영

1년 과정 (1학기 : 3월-6월 / 2학기 : 9월-12월)

해외연수

2026년 여름방학 중 (예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접수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접수방법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광남일보